

序 論

朴 星 來

書雲觀志는 1818(純祖 18)년 천문학자로 서운관에 근무하고 있던 成周憲이 편찬한 官署志다. 조선시대의 여러 관청에 대해 그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 내력을 기록한 관서지는 여러가지가 남아 있지만 천문, 기상, 지리, 卜筮 등을 담당하고 있던 서운관에 대한 관서지는 이것이 유일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천문, 역산, 풍수지리와 卜筮 등을 연구하는 데 없을 수 '없는' 대단히 귀중한 자료다.

귀중한 史料인 서운관지는 그러나 朝鮮시대의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高麗시대까지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운관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朝鮮 이전의 서운관 연혁을 개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서운관의 가장 중심되는 업무는 말할 것도 없이 천문 관측에 있었다. 三國史記에는 일식, 혜성 등의 천문현상 관측기록이 수백개나 남아 있고, 高麗史에 남아 있는 천문 관측기록은 수천개를 헤아릴 정도이다. 이런 많은 천문관계 기록은 분명히 당시에 담당 관서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三國시대에 세 나라에서 각기 어떤 기관이 있어서 그런 관측을 맡아내고 있었는지는 분명한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분명한 기록으로 천문, 기상 등의 관계기관을 세웠다는 내용은 통일신라 때인 718(聖德王 17)년 처음으로 漏刻典을 두고 거기에 博士 6명과 史 1명을 두었다는 三國史記의 것이다. 또 언제라고 밝혀져 있는 기록은 아니지만, 百濟에는 日官部란 관서가 있었던 것으로 三國史記에 남아 있어서 삼국통일 이전에도 이미 천문관서가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밖에도 日官 또는 日者라는 용어가 보이기도 하여 이들이 곧 천문관을 가리킨 것이라 판단된다. 慶州에 지금도 남아 있는 7세기의 천문대 瞻星臺는 바로 그런 천문 관측기관의 존재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일본에서도 718년에는 정식으로 陰陽寮라는 관서를 만들어 천문관측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중국에서 이보다 훨씬 전부터 이런 기관이 세워져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서운관의 기원은 삼국시대의 세 나라 모두에 거슬러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만 그 이름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천문담당 관서가 좀 더 분명한 형태를 갖게 된 것은 고려 초부터의 일이었다. 高麗史에 의하면 이 관서의 이름을 書雲觀으로 고친 것은 1308년 새로 [충선왕이 즉위하면서부터의 일이었다. 이 기록을 보면, 서운관은 天文, 曆數, 測候, 刻漏 등을 [담당하는 관서로서 고려초에는 太卜監과 太史局의 둘로 갈라져 있었다. 또 이 가운데 太卜監은 1023(顯宗 14)년 司天臺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司天臺는 1116(睿宗 11)년 司天監으로 이름을 바꿨다. 또 忠烈王 즉위년에는 그 이름을 잠시 觀候署라 고쳐 부른 적도 있다. 1308년 새로 발족한 書雲觀은 바로 사천감과 태사국이 병합되어 생긴 것이었다. 또 공민왕 때에는 두 번이나 서운관을 전처럼 둘로 나눴다가 다시 합치는 등의 동요가 있었다. 즉 1356(恭愍 5)년 서운관은 다시 사천감과 태사국으로 나뉘었으나 1362(공민 11)년에는 통합되고, 1369(공민 18)년에는 다시 분할되었다가 1372(공민 21)년에는 다시 통합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朝鮮 왕조는 처음에 고려 때의 관제를 그대로 따라 이 관서를 서운관이라 불렀으나, 1466(世祖 12)년 그 이름을 觀象監으로 고쳤다. 그 후 조선시대를 통하여 관상감은 이 관서의 공식 명칭으로 오래 사용되어 왔다. 서운관지에도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연산군 말년인 1506(연산 12)년에 잠깐 관상감을 폐지하고 司曆署가 설치된 일도 있기는 하지만 잠깐 동안의 일이었다. 그 후 1894(고종 31)년 甲午개혁과 함께 관상감은 觀象所로 이름을 바꾸어 學部에 소속되기에 이른다.

書雲觀志는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 1이 9개 항목, 권 2가 11개 항목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권 3과 권 4는 각각 한 항목으로 짜여져 있다. 여기에 序文이 붙여져 있으나 이를 집필한 荳溪居士가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권 1을 구성하고 있는 9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官職, 官廨, 薦舉, 科試, 取才, 勸課, 褒貶, 坐衙, 番規——우선 관직은 서운관 소속의 관원에 대한 명칭, 직급, 정원 등을 소개하고 있고, 관해란 소속 건물 등의 위치와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다음은 관상감 관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천거 규정이 어떠하며, 雜科 또는 陰陽科의 시험규정과 과목, 교재, 그리고 상벌에 관한 것 등이 소개되어 있다. 다음은 관상감 관원들의 근무 수칙이 소개되어 있는데, 특히 해성과 같은 천문현상은 발견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었고, 그밖의 현상들은 근무시간 중에 정리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천문현상은 밤을 새워서 관측하는데 근무하는 관원을 3반으로 나뉘 5번을 교대하며 번갈아 하늘을 지키게 되어 있었다.

권 2의 내용은 治曆, 測候, 交食, 堪輿, 選擇, 屬官, 吏隸, 進獻, 頒賜, 式例, 貢物 등의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우선 治曆은 역법의 내력과 함께 담당 직원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설명되어 있고, 千歲曆과 百中曆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다. 다음 測候에서는 客星과 彗星에 대한 관측방법과 보고 양식이 다뤄지고 있다. 交食에서는 일식의 경우 중국의 자료를 서울의 경우로 환산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월식은 전세계에 공통되기 때문에 다만 지역에 따른 발생 시간에만 현지 시간의 차이로 다른 시간에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있다. 일식, 월식의 예보규정과 救食儀의 절차가 들어 있다.

堪輿은 풍수지리에 관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陵 관리에 관한 것만이 간단히 다뤄져 있다. 選擇은 각종 행사에 대해 吉日을 고르는 문제에 대한 것이고, 屬官과 吏隸에는 관상감에 소속된 그밖의 관리와 노비 등까지가 설명되고 있다. 進獻과 頒賜에는 관상감이 담당하여 제작한 백중력, 천세력 등과 단오날의 부작과 그밖의 禳辭을 위한 부작을 어떻게 궁중에 바치고 또 백관에 나눠 주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다. 式例에는 서운관이 해마다 달력의 인쇄에 사용한 종이의 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16,000軸이던 것이 1798(正祖 22)년 徐浩修의 건의에 따라 18,000軸으로 늘린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또한 각종 祭祀日에 대한 규정과 함께 祈雨祭를 12次까지 지낼 경우의 절차가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각종 보고서 등의 양식도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貢物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 각 지방에서 바치게 되어 있는 공물의 양이 기록되어 있다. 종이 대신에 쌀을 낼 수도 있는데 총계가 1,581石이라 적혀 있다.

권 3의 내용은 書雲觀志의 거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건 것인데, 서운관과 관련된 역사를 기록한 “故事”로 되어 있다. 여기 들어 있는 내용은 아주 선별된 것이고, 후대로 내려 갈수록 상세한 것이 특징이다. 포함된 내용은 1392(太祖 1)년부터 1811(純祖 11)년까지의 朝鮮시대 자료만이 포함되어 있다.

권 4는 “書器”란 제목을 붙여 놓았지만, 여기 포함된 책은 18가지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에는 이미 서운관이 목판을 보관했던 것이 지금은 이미 없어졌다고 기록한 것도 둘이나 된다. 그 나머지는 원판이 서운관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朝鮮학자에 의한 것은 諸家曆象集, 天文類抄, 天東象緯考, 新法中星紀, 漏籌通義, 國朝曆象考, 協吉通義 등과 이미 판

목을 잃어버렸다는 李純之의 選擇要略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의 책이라 되어 있다. 더구나 관측 기구로는 小簡儀, 石刻天文圖, 赤道經緯儀, 地平日晷만이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을 뿐, 많은 다른 기구들이 완전히 무시되어 있다.

이상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서운관은 끊임없이 여러가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던 것이 확실하고, 그 가운데 상당부분은 1910년 경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인 기상학자로 統監府 관리로 왔던 和田雄治는 1910년에 우리 나라에 風雲記, 星變測候單子, 天變抄出謄錄 등이 있었음을 증언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고, 지금은 몇장 되지 않는 측후단자가 단편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자료의 부족과 보고서들의 없어짐은 實錄이나 承政院日記 등을 참고하여 상당히 보충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 이 책을 지은 成周應에 대해서도 그가 서운관의 관리로서 천문학자였다는 사실과 그가 또한 金泳 등과 함께 1796(正祖 20)년에는 國朝曆象考를 펴냈다는 사실 이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의 연구과제라 하겠다.

書雲觀志는 한국의 천문학사, 지리학사 등의 연구에 있어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진 史料이다. 이 책은 전체가 하루 속히 번역되는 것이 더 많은 연구자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연구는 그 전단계로 우선 이 책의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는 기초적 연구로 되어 있다. 이 연구는 원래 大宇財團이 한국과학사학회에 연구비를 제공하여 시작되었으며, 처음 얼마 동안 연구자들이 부분 부분을 담당하여 읽고 발표하는 모임을 가졌으나, 그 연구가 지지부진하여 이제서야 이 보고서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여기 다뤄진 부분의 집필자는 각 부분 앞에 밝혀져 있지만, 각 부분은 연구과정에서 원래의 연구자 전원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음을 밝혀 둔다. 1984년부터 이 공동 연구에 참가한 연구자는 金基協, 羅逸星, 朴星來, 兪景老, 李殷晟, 全相運이다.